

P35. 농촌생활 장기변화 연구 - 가구수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ngitudinal change of rural life -focus on the change of household -

고정숙, 이한기, 박은식, 윤순덕, 강경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Ko, Jeong-Sook · Lee, Han-Ki · Park, Eun-Shik · Yoon, Soon-Duck · Kang, Kyeong-Ha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본 연구는 '93~'03년까지 10년 동안 대구·낙동강권역의 사례지역인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도시근교), 경북 상주시 사벌면 원흥3리(평야지), 의성군 봉양면 사부1리(중간지), 문경시 동로면 생달1리(산간지) 4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생활의 장기적인 변화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농촌 미래상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매년조사(인구 및 마을환경변화)와 정기조사(9개 생활영역전수조사 : '93, '97, '02), 5년주기 조사(부부의사결정 : '94, '99, 리더십 및 사회적 친밀도 : '96, '01)로 나누어 실시했다. 여기에서는 가구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매년 지대별 마을의 총 가구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지대별 각 마을의 가구수 변화(1993~2003) (단위 : 호)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계	240	238	237	234	229	228	231	231	228	225	223
도시근교	68	67	69	69	67	66	65	66	65	65	68
평야지	58	57	56	56	56	55	56	54	52	51	51
중간지	61	61	60	59	57	57	56	57	58	56	56
산간지	53	53	52	50	49	50	54	54	53	53	48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마을별 가구수의 감소는 적었는데, 마을별로는 원흥3리(평야지) 총 7호, 사부1리(중간지) 총 5호, 생달리(산간지) 총 5호 순으로 감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간지는 1995~1997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1998년 증가를 계기로 10년 전과 동일한 가구수를 유지하다가 2002년 독거노인가구와 빈곤가계가 5호나 진출하여 감소폭이 컸다. 도시근교는 가구의 전출입이 다른 마을보다 빈번했으나 최종적으로 가구수의 변화는 없었다. 전체 마을의 가구수 최종 변화는 10년간 7호(3%)가 감소하였다.

전출입 패턴을 살펴보면 도시근교 지역은 다른 마을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간지와 평야지의 경우 전입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적는데, 전출가구들은 대부분 노인독거 가구형태로 거주하다가 질병 등의 이유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집으로 전출했다. 이는 평야지와 중간지에서의 전출요인은 질병 등의 문제에 취약한 노인가구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도시근교 지역의 전출 가구들은 사회적 안전망 부족 때문이 아니라 생계나 직업 등의 이유로 전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독거가구의 노후생활 안정화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